

고전문학에 그려진 개성상인 형상 연구*

권혁래**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필자가 고전문학 텍스트에 그려진 상업도시 개성의 풍경, 개성상인의 형상 및 내면세계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보, 이덕형, 김재찬은 시문(詩文)에 개성의 풍경과 개성상인의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고려조 이규보는 한시에 국제무역도시 개경과 벽란도의 활발한 풍경을 그렸으며, 17세기 전반 개성유수를 했던 이덕형은 <송도기이>에 고려조의 순후한 운치가 남아 있는 개성과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상인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조선후기 문신 김재찬은 송도를 유람한 뒤 남긴 시에 대규모 상업도시로 성장한 개성의 풍속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둘째, 고소설, 야담 등의 서사문학에는 다양한 개성상인의 형상과 내면세계가 그려졌다. 매월당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의 한 작품 <취유부벽정기>에는 개성의 부자상인 홍생의 풍류와 고려에 대한 추념의 정이 표현되었으며, 『매옹한록』, 『청구야담』에는 각각 병자호란 때 심양에 잡혀간 아내를 찾으러 간 개성상인의 애뜻한 부부에, 남편이 장사를 하러 외지에 나가 바람을 피운 개성상인의 아내와 그를 용서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34년 간행된 『개성지』에는 외지로 행상을 떠났다가 피살당한 남편의 고달픈 삶과, 그에 대한 아내들의 절절한 마음이 그려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 논문은 열상고전연구회 제90차 정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동야휘집』, 『청구야담』 소재 자료, 김시탁 자료 등과 보완 자료를 알려주신 토론자 김일환 교수님(동국대), 한시 자료해석에 조언을 해주신 이대형 교수님(동국대), 심사논문의 부족한 점과 보완 방향을 세세하게 알려주신 세 분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졌다. 몇몇 야담과 구비문학 작품에는 철저한 경제관념을 지닌 개성상인의 실리주의적 모습이 그려져 있다.

셋째, 묘갈명, 전(傳)에서는 학문과 구제사업에 힘쓴 개성상인과 개성부자의 형상이 기술되었다. 김시탁(金時鐸)은 개성상인의 자제로서, 부친이 이룬 경제적 토대 위에서 좀 더 높은 세계에 뜻을 두어 학문의 길을 걸으면서도, 친척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장학사업, 복지사업을 펼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 영정조 시기의 개성 부자 최순성(崔舜星)은 집안의 재물 수만금을 모아 급인전(急人錢)이라는 자선사업기금을 마련하여 구제사업을 하였다. 『청구야담』에는 개성상인 백부자가 가난한 지식인 허생의 패트론 역할을 하는 지인지감형 인물로 그려졌다.

핵심어 : 개성상인, 송상(松商), <송도기이>, 『청구야담』, 김시탁, 최순성, 김택영, 『송양기구전』

차례

1. 머리말
2. 상업도시 개성의 풍경과 송상의 형상에 대한 기억
3. 서사문학 속의 개성상인
4. 학문과 구제 사업에 힘쓴 개성상인·개성부자
5. 맺음말

1. 머리말

문학은 세계와 인생의 진실된 모습을 포착하여 형상화한다. 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상업적 인간’으로 인식되어 온 개성상인에 대해, 고전문학의 기록들에서 ‘인간적 모습’으로 그려진 양상을 파악하고 그 내면적 속성과 문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상인은 전통적으로 ‘송상(松商)’으로 호칭되었으며, ‘송도상고(松都商賈)’, ‘송도고객(松都賈客)’ 등으로도 불렸다. 개성상인이 우리 역사에서 의미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로 파악된다. 17세기 후반 이후 청과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송상은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내상(萊商)과 함께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개성상인의 국제무역 참여는 중강개시(中江開市)¹⁾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강개시는 임진왜란 때 창설되고, 잠시 중단되었다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1646년부터 재개되었다.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에 열린 중강개시에서 조선은 농우(農牛), 소금, 지물(紙物)과 해대(海帶), 해삼, 면포, 사기 등을 수출하였다. 중강개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교역경험을 쌓은 개성상인들은 이후 의주상인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²⁾

1) 의주와 대안의 청나라 사이의 압록강 중간에 있는 섬에 설치된 무역시장.

조선왕조실록에서 개성상인에 관해 검색하면, 조선 개국 이후 금지했던 개성 시전의 개시를 태종 조에 다시 허락하였다는 기사³⁾, 송상이 예조참의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건⁴⁾, 송상과 만상의 밀무역이 너무나 심하므로 정조가 대신들과 의주의 중강후시를 철폐하는 건에 대해 의논하였다는 기사⁵⁾, 개성주민들 대부분이 삼포경영과 홍삼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기사⁶⁾ 등 18세기 이후 은과 인삼을 가지고 중국, 일본 등에 무역행위를 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발견된다. 『승정원일기』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송상과 만상을 간악한 자들로 묘사하거나⁷⁾ 송상들이 몰래 삼 농사를 지어 골치아파하는 모습⁸⁾ 등 송상에 관한 41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조선 중후기 일본과의 교린 관계를 기록한 『변례집요(邊例集要)』에는 일본과 밀무역을 하다가 표류하던 송상의 귀환 기사⁹⁾, 송상·내상이 강계삼으로 일본과 밀무역을 너무 심하게 하여 나라에 약으로 쓸 인삼이 부족할 정도이므로 엄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¹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조의 기록들에는 개성상인들의 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많았는데, 20세기 후반 들어 역사학이나 경제학계에서 그들의 상업행위를 민족자본의 형성이나 합리적인 상업경영으로 평가하는

2) '개성상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encykorea.aks.ac.kr.

3) 『태종실록』 23권, 태종 9년(1409) 3월 3일. 한국고전번역원 DB. db.itkc.or.kr (이하 조선왕조실록 인용은 모두 이 DB를 사용하였음)

4)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7월 18일 '禮曹參議吳命瑞上疏, 辨金尙重疏'. 이 기사는 예조 참의 오명서가 동래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김상중의 상소에 변명하는 것인데, 동래상인들이 모두 송도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5)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783) 10월 14일.

6) 『순조실록』 24권, 순조 21년(1821) 11월 29일.

7)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8월 29일.

8)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8월 18일.

9) 『변례집요』 上(한국사료총서 제16집) 卷之三, <漂差倭> 壬午 '開城漂民'.

10) 『변례집요』 下(한국사료총서 제16집), 卷之九, <開市> '江蔘變通節目'

시각이 형성되었다. 개성상인들은 복식부기와 차인 제도, 송방, 인삼의 재배와 가공, 시변제 등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각종 상관습을 낳았을 뿐 아니라, 축적한 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등 중세 말기 상업자본의 근대적 지향을 보여주었고¹¹⁾, 일제하에서는 개성 특유의 사금융제도인 시변제(時變制)를 통해 일본 자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굳건한 기업정신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¹²⁾

이러한 경제적 측면과 함께, 근대 시기 개성인들의 저술활동, 개성상인들이 후원한 언론활동, 예술활동도 조명되었다. 정중현은 김택영, 박은식 등이 저술활동을 통해서 개성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개성상인들이 상업과 인삼사업을 통해 민족자본을 형성하여 일본자본의 침탈에 대항하였다는 점을 평가하였다.¹³⁾ 김남석은 1910~20년대 일본 자본의 영향력과 경쟁하던 개성 지역 유지(상인)들이 개성상인 특유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근대연극장인 ‘개성좌’¹⁴⁾를 인수하여 유지하고, 확대 경영하였음을 평가하였다.¹⁵⁾ 양정필은 근대 시기 개성에서 간행된 『고려시보』¹⁶⁾를 1930년대 개성 출신의 신진 엘리트 그룹이 개성의 부와 상업 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간행한 근대언론지라고 평가하였

11)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 역사비평사, 2001, 209~220면.

12) 오성, 『개성상인들은 어떻게 일제에 저항하였나?』, 한철호 외 저, 『대한제국기 지방 사람들』, 어진이, 2006.

13) 정중현, 『일본제국기 개성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279~329면.

14) 이기세가 1912년 세운 ‘개성좌’는 한국인이 주인인 개성 최초의 극장으로, 1940년대까지 연극, 영화를 공연하며 개성에서 유일한 향토 공연장의 구실을 하였다.

15) 김남석, 『일제강점기 개성 지역 문화의 거점 “개성좌(開城座)” 연구 -1912년 창립부터 1945년까지-』, 『영남학』 26,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4, 367~395면.

16) 1933년 4월 15일 경기도 개성에서 발간된 지방신문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된 1941년 4월 16일까지 거의 매월 2회 발간되었다. 당시에 유명했던 중앙일간지에 버금가는, 개성과 그 근교일대는 물론 황해도 등까지도 널리 보급되었던 신문이다.

다.¹⁷⁾ 개성상인의 문학적 형상에 관한 선행 연구는 김창원의 『근대 개성의 지리적 배치와 개성상인의 탄생』(2015)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원은 위 논문에서 전근대 시기 한양의 종속적 위치에 있던 개성이 일제 하 압록강철교 부설로 인해 결정적으로 위상이 변모하였다는 점을 평가하고, 1910~30년대에 간행된 『반도시론』, 『고려시보』 매체를 통해 ‘근대 민족상인’으로서의 개성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개성상인을 묘사한 고전문학 작품으로, 정두경의 <송도상인노래[松都賈客詞]>, 김재찬의 <송경십영(松京十詠)>, 이덕형의 <송도기이(松都奇異)> 등을 소개하였다.¹⁸⁾

필자가 ‘개성상인’의 문학적 형상화를 고찰하려는 것은, 문학작품이 대상 인물의 외모와 행동뿐 아니라 내면 성격을 그려내는 특성 상, 개성상인의 다양하고도 독특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 문학작품을 통해 개성상인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발견한다면, 사회경제적 인물로서의 개성상인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문학, 특히 고전문학에 그려진 개성상인의 형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상업도시 개성 및 개성상인에 대해 기록한 지식인들의 시문(詩文)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고소설, 야담, 구비문학 등의 서사문학 작품에 그려진 개성상인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학문과 구제사업에 힘썼던 실제 개성상인의 후예와 개성부자들에게 대한 기록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17) 양정필,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 『고려시보』 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191~217면.

18) 김창원, 『근대 개성의 지리적 배치와 개성상인의 탄생』, 『국제어문』 64, 국제어문학회, 2015, 33~53면.

2. 상업도시 개성의 풍경과 송상에 대한 기억

개성상인들이 상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려 시대(918~1392년) 개경이 국제무역도시로서 번성했던 전통이 있다. 고려는 대외무역이 활발했던 나라였다. 개경은 국제무역항인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를 관문 삼아 서해를 통해 송나라, 일본, 교지국(베트남), 대식국(아라비아)까지 활발히 해상무역활동을 하면서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때부터 개경의 상인들은 송상(松商)이라고 불렸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쌍화’는 ‘아랍의 위구르족이 먹던 음식명 ‘samsa’가 변이된 차용어로서, 고려가 외국과의 교역과 교류가 융성하여 아랍상인들이 수도 개성에 상주했던 증거로 파악된다.¹⁹⁾

일찍이 고려 시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년)는 국제무역도시 개경 및 벽란도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시로 노래한 바 있다.

조수는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고	潮來復潮去
오가는 배머리 서로 잇대었도다.	來船去船首尾銜相連
아침에 이 누 밑을 떠나면	朝發此樓底
한낮이 못되어 남만(南蠻)에 이르도다. ²⁰⁾	未午棹入南蠻天

위 시구는 고려의 시인 이규보가 예성강 하구에 있는 누각 위에 올라 벽란도를 바라보며 지은 시의 일부다. 이규보는 예성강을 통해 서해바다를 드나드는 배들이 즐비한 풍경을 그리고, 아침에 떠난 배들이 순식간에 남방국가에 이른다며 해상왕국 고려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였다. 이 시는

19) 고혜선, 「고려 ‘쌍화’와 ‘삼사(samsa)’의 관련성 연구」, 『동양학』 55, 단국대 동양학 연구원, 2014, 119~140면.

20) <又樓上觀潮 贈同寮金君>,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제16권 古律詩.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한 벽란도와 국제도시로서 번성한 개성의 경관을 잘 보여준 시로 평가된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뒤, 국제도시 개성의 활기찬 모습과 송상들의 왕성한 해외무역은 일시에 사라지고, 개성 주민들은 생계수단은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의 <개성부> ‘풍속조’에 “주민들이 행상으로 업을 삼는다.”고 기록될 정도로, 작은 규모의 상업이 주된 것이었다. 근대 개성상인 공성학은 1929년의 인터뷰 자료에서, 개성 사람은 이씨조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서 새 나라에 베퉴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이성계도 개성 사람에게는 과거의 길을 막아서 개성 사람들은 베퉴길에 나가지 않고 이재(理財)의 길을 택해서 그 생도를 유지해 나갔다고 구술하였다.²¹⁾

조선 초기 이래 문신들은 개경을 유람한 뒤 ‘개성유기(開城遊記)’를 남겼는데, 여러 편을 찾아보아도 상업도시 개성이나 개성상인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조선 초의 문신 채수, 유희인 등이 1477년(성종 5) 개성에 여행을 다녀온 뒤 각기 남긴 <유송도록(遊松都錄)>에는 송악산, 만월대, 영통사, 박연폭포 등 개성의 명승지에 대한 감회, 베퉴아치로서의 자부심이나 여행의 즐거움만이 표현되어 있다.²²⁾ 조선 중기에 기록된 조찬한의 <유천마성거양산기(遊天磨聖居兩山記)>(1605년), 김육의 <천성일록(天聖日錄)>(1607년), 김창협이 <유송경기(遊松京記)>(1671년), 오원의 <서유일기(西遊日記)>(1729) 등의 유기에도 선죽교, 박연폭포, 천마산 등의 개성의 명승지를 유람한 감회가 중심적으로 표현되었고, 포은 정몽주, 화담 서경덕 등 뛰어난 유학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회가 조금 더해졌다. 아무

21) 공성학 구술, <개성상인>,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 ‘경기도편’(임석재전집5), 평민사, 1989, 43면.

22) 채수 외 저, 전관수 역, 『조선사람들의 개성여행』, 지만지, 2008, 13~14면.

리 호기로운 탐승(探勝) 위주의 여정이었다고는 하나,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의 개성유기에 개성상인들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문신들에게 개성상인들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의 풍속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긍정적 내용의 글을 남긴 사람은 17세기 전반 개성유수의 직임을 맡았던 이덕형(李德溍: 1566~1645년)으로 보인다. 그는 <송도기이(松都記異)>에 개성의 풍속과 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승정 기사년(1629)에 내가 개성유수로 나갔다. 세대가 멀어져서 고려조의 남은 풍속이 변하고 바뀌어 거의 없어졌는데, 오직 장사하고 이익을 좇는 습관만은 전에 비하여 더욱 성해졌다. 그런 때문에 백성들의 넉넉한 것과 물자의 풍부한 것이 가위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 하겠다. 상가의 풍속은 저울눈을 가지고 다투므로 사기로 소송하는 것이 많을 듯한데도, 순후한 운치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문서 처리할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²³⁾

이덕형은 시간이 흘러 개성에 옛 왕조의 풍속이 거의 남지 있지 않지만, “장사하고 이익을 좇는 습관(貿遷逐利之習)만은 전에 비하여 더욱 성해졌다.”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넉넉한 것과 물자의 풍부한 것은 우리나라 제일(人民之富庶 物貨之殷儲 可謂冠於吾東矣)”이라고 평한 것처럼 개성이 상업도시로서 성장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았다.²⁴⁾ 상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소송하는 것이 많을 듯한데도 고려조의 순후한 운치가 남아

23) 이덕형, <송도기이(松都奇異)>, 『대동야승』 제71권: 『대동야승』 17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 327면.

24) 이 구절에서 “개성의 상업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덜 문명화된 고려조의 유산으로 이해”(김창원, 앞의 논문, 46면)했다는 김창원의 해석은 문맥을 오독한 게 아닌가 싶다.

있어 사기 소송 건이 적다고 한 것은 개성상인들을 우호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임에 틀림없다. 개성의 풍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고도(古都) 사람들을 보건대, 백성들이 모두 질실(質實)하고 돈후(敦厚)해서, 비록 그 풍속이 장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또한 능히 부지런히 일해서 여유 있게 재산을 벌여 남과 다투지 않으며 남녀가 놀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마을에는 창기가 없으며, (중략)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때를 당해서 의관을 한 사람들은 새 나라를 따라 옮겨 가지 않으면 도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가문은 귀천이 없고, 전격(銓格; 벼슬)을 본래부터 비루하게 여기고 업신여겼다.²⁵⁾

『고려사』에서는 고려의 군신들이 방탕하고 요괴하고 허탄하다고만 기록하였는데, 이덕형은 개성사람들이 질실·돈후하며, 부지런히 일해 재산을 모아놓았기에 남과 다투지 않으며, 마을에 창기도 없고 가문에 귀천을 두지 않고 살았다고 하였다. 상인(商人)을 일반 농민보다 못한 계층으로 취급한 조선 사회에서, 이덕형보다 개성의 풍속과 개성상인들의 생활을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한 이는 드물지 않을까 한다.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정두경(鄭斗卿: 1597~1673년)은 <송도 상인 노래[松都賈客詞]>라는, 개성상인의 행상 활동과 내면세계를 묘사한 흔치 않은 작품을 남겼다.

상인들 해마다 산에 산 너머 다니더니
올해도 또 의주 향해 가네.
압록강 서쪽서 무역시장 열리니

賈客年年山上山
今年又復往龍灣
鴨江西畔開場市

25) 『대동야승』 17권, 354면.

요동에서 온 비단을 사 가지고 돌아오네. 賣得遼東錦繡還

송도 상인들 먼 길 떠날 때 松都賈客客行遙
문 앞의 버들가지 하나 꺾어 가는구나. 去折門前楊柳條
천리 밖에서 홀연 동네 사람 만나면 千里忽逢同里閨
객사에서 밤 깊도록 탁타교를 얘기하네. 夜深歸語橐駝橋²⁶⁾

개성상인들은 대부분 소나 말을 소유하고 여러 명이 행상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시인은 1연에서 산 너머 의주 중강개시에 물건을 싣고 가 팔고, 비단을 사오는 개성상인의 생활을 그렸다. 싣고 간 물건품목을 쓰지는 않았지만, 인삼을 싣고 가서 요동에서 온 비단을 사왔음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2연에서는 타지에 나가 행상을 하며 고향집 그리는 상인들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상인들이 길을 떠날 때 문 앞의 버들가지 하나를 꺾어 가는 이유는 행상(行商)이나 사행(使行) 길에서 고향집을 떠올리며 고단함을 달래기 위함일 것이고,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 고향의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그네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함일 것이다. 시인은 개성상인의 고단한 행상 생활과 타지에서 고향 그리는 심정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년)은 1785년에 지은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의 ‘고려’ 제6수에 예성강 어귀에 상선이 해마다 들어오던 모습을 그렸다.

조수 들고나는 급수문을 지나 潮落潮生急水門
해마다 장삿배는 강마을에 올려온다. 季季商舶到江村

26) 정두경, <송도상인 노래[松都賈客詞]>, 『동명선생집(東溟先生集)』 卷之二, 七言絕句.

무산십이봉 닮은 못 봉우리엔
 눈물 자아내는 원숭이 소리만 없을 뿐.

攢峯十二巫山似
 只少三聲墮淚猿²⁷⁾

유득공은 1778년 무렵 『동국지지(東國地誌)』을 읽는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받아 『이십일도회고시』를 짓기 시작했으며, 1785년(정조 9)에 43수 전편을 완성했다고 한다. 위 시의 기구, 승구에서는 조수가 밀려들고 나가는 예성강 협곡 급수문의 풍경과 장삿배가 간간이 오가는 18세기 말의 예성강 강안의 마을 풍경을 그렸다.²⁸⁾ 예성강의 양안은 가파른 협곡이라 강이 길고 좁은데, 이 풍경이 슬픈 원숭이 소리로 유명한, 중국 사천성 동부에 있는 무산협곡과 흡사하다는 것을 전구, 결구에서 노래하였다. 유득공은 고려왕조가 망한 지 400년 뒤의 고려왕성을 돌아보면서 예성강에 장삿배 드나드는 풍경을 떠올렸는데, 이규보가 노래한 것처럼 설 새 없이 배들이 항구를 드나드는 풍경은 아니지만, 정례적으로 장삿배가 다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조선 정부는 개성상인과 같은 사상(私商)들의 무역행위를 불법으로 지목해 철저히 통제하다가, 1681년(숙종 7)부터 사행비용과 군수품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상들을 무판별장(貿販別將)에 임명함으로써 사상들에게 대외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²⁹⁾ 개성상인들이 대규모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개성상인에 대한 여론도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선 후기 문신 김재찬(金載瓚: 1746~1827년)이

27) 이 시의 번역은 이민홍의 번역문을 옮겼다. 이민홍 역,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국학자료원, 2008, 147면.

28) 『송사(宋史)』에 “예성강은 두 개의 산 사이에 있는데, 암석으로 된 협곡으로, 소용돌이가 심하게 치며 흘러가니, 이른바 급수문이 가장 험준하고 좁다는 것”라고 하였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급수문은 개성 남쪽바다 가운데 있는데, 움푹 파인 협곡이 마치 무협(巫峽)과 같다.” 하였다.(위의 책, 148면에서 재인용)

29) ‘개성상인’, 『민족문화백과사전』.

송도를 유람한 뒤 지은 <송경십영(松京十詠)>이라는 노래에는 상업도시 개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가득하다.

其六

풍속이 강남과 비슷하여
사람들 재물만 섬긴다네.
작은 이익만 알고
농상(農桑) 중요한 건 모른다네.
군읍을 돌다 보면 들리는 소리
태반이 송상들 송사 다툼이라네.

土俗似江南
居人尙財用
但知錐刀利
不事農桑重
往往郡邑間
太半松商訟

其七

한양과 평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재화가 날마다 몰려드네.
술집 깃발은 온 성에 가득하고
말발굽과 수레바퀴는 성의 큰길을 채웠네.
큰 상인은 손도 까딱 얹는데
집안사람들 기름진 음식 한 상 차렸네.

地居二京會
貨賄日湊輻
旋帘挾一城
蹄轂咽九陌
大賈不動手
家居方丈食³⁰⁾

1~5수에서 개성의 역사와 명승에 대한 감회를 노래한 시인은 6, 7수에서 상업도시 개성과 개성상인의 모습을 노래하였는데, 시의 정조(情調)는 앞서 본 이덕형의 기술 및 정두경의 시와는 사뭇 다르다. 제6수에서는 개성이 중국 강남처럼 재물이 풍성한데, 사람들이 작은 이익만 알고 농사와 양잠의 귀한 줄 모른다는 점, 마을에 인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소리만 들린다고 했다. 제7수에서는 개성의 부유한 풍경을

30) 김재찬, <송경십영(松京十詠)>, 『해석유고(海石遺稿)』 卷之三, 詩.

그렸다. 한양과 평양 사이에 위치한 것 때문에 개성에 재화가 몰려들지만, 성에는 술집과 마차만 가득할 뿐이고, 아무 수고도 않는 상인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호사스럽게 산다며 비아냥거렸다. 개성이 상인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부유해졌다지만 정작 풍속은 악화되었다는 표현에서는 개성상인들을 아니꼽게 여기고 멸시하는 듯한 시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200여 년 전 이덕형이 기록한 개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시선은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지만, 17세기 후반 이래로 대규모 상업도시로 성장한 개성의 풍속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서사문학 속의 개성상인

3.1. 개성상인 홍생(洪生)의 풍류와 역사의식

조선 초기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년)이 지은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에는 개성의 부자상인 홍생(洪生)의 풍류와 역사의식이 그려져 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천순(天順) 초년에 개성에 홍생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긴데다 풍도가 있었으며, 또한 글을 잘 지었다. 홍생은 팔월 한가위날을 맞아 면사(綿絲)를 사려고 친구들과 함께 평양장에 포백(布帛)을 싣고 와서 강가에 배를 대었다. 성안의 이름난 기생들이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서 홍생에게 추파를 던졌다.(天順初, 松京有富室洪生, 年少美姿容, 有風度, 又善屬文. 值中秋望, 與同伴, 抱布貿絲于箕城, 泊舟艤岸 城中名娼, 皆出闌闈, 而目成焉.)

소설 첫머리에 소개된 홍생은 개성 사람이고, 부자이고, 잘 생기고 외모도 뛰어난 청년이다. 개성에서 포백을 배에 싣고 와서 평양장에서 팔고, 면사를 사기는 것으로 보아 그는 상인임에 틀림없다. 소설 속 홍생은 평양에서 실을 대량 구입해 배에 싣고 가 개성의 여인들에게 베를 짜도록 하고, 이를 다시 싣고 와 평양장에 가져와 파는 중간상이 아닐까 추정된다.³¹⁾

한편으로 그는 밤에 흥에 겨워 홀로 배를 타고 나가 부벽정(浮碧亭)에 올라 옛 도읍을 바라보며 시를 읊조리고 춤을 추는 ‘풍류남아’다.³²⁾ 부벽정은 경치 좋기로 유명한 평양에서도 절경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가 읊조리는 시의 주제는 맥수은허(麥秀殷墟)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사에 대한 상념이다. 이로 보아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글을 알고 역사의식을 지닌 고려 귀족의 후예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읊은 시는 고조선 왕실의 기씨녀(箕氏女)를 만나게 되는 직접적인 매개로 작용한다. 기씨녀는 위만(衛萬)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기준(箕準)의 딸로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신인(神人)을 만나 신선의 거처로 인도되었고, 항아(嫦娥)의 시녀가 되어 살다가 문득 고향 생각이 나서 부벽정에 내려왔다가 홍생을 만난 것이다.³³⁾ 기씨녀와 시를 주고받으며 하룻밤 인연을 맺은 홍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병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뒤 홍생은 기씨녀를 그리워하다가 죽지만 며칠이 지나도 시신의 낮빛이 변하지 않자,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 하였다.

홍생이 기씨녀를 만나 그녀를 잊지 못하고 마침내 죽어 신선이 되어 그녀가 사는 세계로 간다는 서사는 비록 상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고려 귀족

31) ‘실을 사고 포백을 판다’는 행위에 대해, 이지하는 “물물교환을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여자를 유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하였는데(김시습 저, 이지하 역, 『금오신화』, 민음사, 2008, 62면.), 이러한 논의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32) 이대형, 『『금오신화』의 서사방식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1면.

33) 위의 논문, 71~72면.

의 후예가 지닌, 고려에 대한 애뜻함과 깊은 추념(追念)의 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개성상인의 부부애와 애환

서사문학에 그려진 개성상인의 형상에서 인상적인 것은 부부애에 대한 것이다. 경제적 인간으로 인식된 개성상인이 가장 인간적으로 그려진 모습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애를 나누는 순간일 것이다. 조선 후기 박양한(朴亮漢: 1677~1746년)이 펴낸 야담집 『매옹한록(梅翁閑錄)』³⁴⁾에 수록된 <병자호란 때 잡혀간 송도상인의 아내[丙子胡亂松都商賈之妻]>라는 작품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간 상인의 처와, 그 처를 찾으러 청나라에 간 남편 간에 애뜻한 사랑 장면이 그려져 있다.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⁵⁾

- 1) 병자호란 때 한 송도상인의 처가 오랑캐에게 잡혀갔다.
- 2) 그 상인이 처를 찾으려고 돈을 모아 심양에 가니, 그 처는 마장군(馬將軍)의 애첩이 되어 있었다.
- 3) 상인은 마장군이 자기 처를 총애하여 속신해 주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리라는 말을 듣고서도 처를 만나기 위해 정원으로 숨어 들어갔다.
- 4) 상인이 한밤에 물을 뜨러 나온 처를 만나니, 그 처가 오랑캐도 인간이고 자기를 사랑하므로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재물을 줄 터이니 그것으로 첩을 사서 살라고 하였다.

34) 이 야담집은 저자 박양한이 그때그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조 개국 이래 숙종 때까지 약 300년 간의 기사이며, 인조·효종·현종·숙종대의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35) 『매옹한록』의 제240화 작품으로, 『조선조문헌실화집요』 2권(서대석 편저, 집문당, 1992, 348~349면)에 개요가 수록되어 있다.

- 5) 또한 추격병이 있을 것이라며 사흘 동안 산꼭대기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떠나게 하였다.
- 6) 다음날 그 처가 자결을 하자, 마장군이 놀라 조선인이 왔음을 알고 추격을 하다가 사흘이 지난 다음 포기하였다.
- 7) 그 상인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위 내용은 『매옹한록』을 비롯하여 세 종의 야담집에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절개와 사랑을 지키는 개성상인 처의 형상이다. 개성상인의 처는 자신을 찾으러 위협을 무릅쓰고 온 남편을 위해서는 도망가는 법을 알려준 뒤 자결한다. 개성상인은 아내의 말대로 삼 일 동안 산 속 동굴에 숨어 있다가 조선으로 도망쳐 온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청에서 돌아온 며느리나 아내[환향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던 형국이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부원군 장유(張維)는 속환된 며느리를 다시 불러 받아들이면 선조의 제사를 모실 수 없으며, 자신의 외아들이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 달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반해 청국에 잡혀갔다 속환되어 온 딸을 둔 전 승지 한이겸(韓履謙)은 사위가 다시 장가를 들러 한다면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사관은 “절의를 잃은 사람과 짝이 되면 이는 자신도 절의를 잃는 것이다. 절의를 잃은 부인을 다시 취해 부모를 섬기고 종사(宗祀)를 받들며 자손을 낳고 가세(家世)를 잇는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³⁶⁾ 하며, 절개를 잃은 부인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오로지 아내의 안위만을 걱정하여 직접 청국으로 아내를 찾으러 간 개성상인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위협이나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

36) 『인조실록』 인조 16년 무인(1638) 3월 11일.

한 부부애를 볼 수 있다. 심양에 간 그는 아내가 청나라 장군의 애첩이 된 것을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같이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당시 사대부들과 달리, 실절 논란에 개의치 않고 오직 아내를 구하여 돌아가려는 개성상인의 모습은 열녀 명분에 매달린 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청나라 주인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 남편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책을 쓴 것이었다. 작가는 큰돈을 준비해 아내를 찾은 남편에게서 ‘의리’를, 그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결한 아내의 모습에서 ‘절개’를, 그리고 애뜻하고 슬픈 부부애를 형상화하였다.

개성상인 부부에게서 힘든 점은 남편이 장사를 하러 외지로 나가면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야담』에 수록된 <해서 원이 시신을 감추어 은혜를 갚다[匿屍身海倅償恩]>³⁷⁾라는 작품에는 장사를 하러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바람을 피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복잡한 감정이 그려져 있다. 작품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 1) 충청도 선비 유씨가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하다.
- 2) 유씨가 송도로 가 명승지와 고적을 유람하다.
- 3) 성 안을 다니다가 비를 피해 길가 집 문 앞으로 피신하다.
- 4) 그 집의 여종이 안으로 불러 집으로 들어가다.
- 5) 상인인 그 집 주인은 장사하러 나가 수년째 돌아오지 않았고, 20세 정도의 안주인이 맞아주다.
- 6) 유생이 식사를 대접받고 안주인과 정분이 나 그 집에 열흘 동안 머무르다.
- 7) 상인의 친구가 그 기미를 알고 친구에 기별하다.

37) <익시신해수상은(匿屍身海倅償恩)>, 『청구야담』 권5. 이 작품은 최웅이 주해한 『주해 청구야담』 I (국학자료원, 1996), 378~385면에도 실려 있다.

- 8) 상인이 달려와 새벽에 담을 넘어 집에 들이닥쳐, 유생과 아내를 호통치다.
- 9) 상인이 아내에게 술과 고기를 사오라 하여 유생과 술잔을 나누다.
- 10) 상인이 유생과 아내에게 죄를 꾸짖고 용서하다.
- 11) 상인이 즉시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와 함께 자기 집으로 와 집안 동정을 살피다.
- 12)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친구가 상인에게 사과하다.
- 13) 유생이 몇 년 뒤 급제하여 해서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다.
- 14) 그 고을의 촌민이 자기 아버지가 송도 상인에게 맞아 죽었다고 고발하다.
- 15) 원님이 송도 상인이 몇 년 전 자신을 용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비밀리에 통안을 시켜 상가집의 시신을 죽은 개로 바꿔놓게 하다.
- 16) 시체가 없으므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 송도 상인이 처벌을 피하다.
- 17) 6, 7년 뒤 유생이 송상의 이웃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뒤, 송상을 불러 그간의 일을 털어놓다.
- 18) 상인이 유생의 은덕에 감사해 하고, 평생 서신을 왕래하다.

이 작품에는 두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 1)~12)에는 개성상인이 자신의 아내가 한 선비와 외도한 것을 알고도 용서한 사건이, 13)~18)에는 몇 년 뒤 해서 지방의 고을사또로 부임한 선비가 개성상인이 살인범으로 고소되었을 때 시신을 숨겨주어 상인에게 은혜 갚은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문제의 발단은 이십대 초반의 젊은 개성상인이 외지로 장사하러 나가 몇 년 동안 집을 비운 것이었다. 상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는 개성에 유람을 온 한 선비가 우연히 자기 집문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불러들여 바람을 피웠다. 친구가 기별해주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상인은 그날 새벽에 자기 집에 들이닥쳐 아내의 외도 장면을 목도한다. 선비를 죽일 것처럼 분노했던 상인은 선비와 술잔을 나누는 뒤 그를 꾸짖

어 보내고, 아내도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는 곧바로 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 아무 일도 없었음을 확인해주고 다시 집을 떠난다.

당장 칼부림이 날 것 같던 일을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처리한 개성상인에게서 그의 ‘대범’한 성격을 발견한다. 그는 왜 아내와 선비를 용서한 것일까? 아마도 상인은 이 일이 자신이 몇 년 동안 집을 비우고 외로운 아내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자책한 것은 아닐까?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젊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오늘 날도 그렇겠지만 당시 윤리관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 것이다. 간통한 두 남녀를 칼로 찢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상인과 그 집안, 그리고 한 선비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난다. 상인은 자신을 자책하며 아내와 선비를 꾸짖고 용서하였다. 덕분에 상인은 아내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고, 선비는 훗날 벼슬을 얻어 상인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1934년에 발간된 『개성지』 ‘열녀’ 편에는 외지에 행상을 나가 위험에 처했던 개성상인과, 그러한 남편을 둔 여인들의 사랑과 애환이 그려져 있다. 서인(庶人) 예업(禮業)과 송씨(宋氏)는 행상을 나갔던 남편들이 외지에서 피살되는 상황을 겪는다. 예업은 서인 백귀종(白貴宗)의 처로, 남편이 외방에서 행상을 하다가 도적에게 피살되자 죽도 먹지 않고 주야로 통곡하다가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죽었다. 이 일로 조정은 그녀에게 정려(旌閭)를 내렸다. 송씨의 남편 서인 고준실(高俊實)은 의주로 행상을 갔다가 그의 재물을 노린 박춘건이라는 자에게 살해를 당한다. 송씨는 남복을 하고 의주로가 남편이 살해당한 전말을 밝혀 관아에 고발하지만, 관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송씨는 갖은 노력 끝에 남편의 살해범을 밝혀내 사

형 판결을 받아내고 직접 복수하였다.³⁸⁾

두 사건에서 외지로 행상을 떠난 상인 남편은 돈을 노린 자들에게 살해 당하기 쉬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남편을 자기 목숨 만큼이나 사랑했던 아내들의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다.

3.3. 개성상인의 실리적 경제관념

사학계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개성상인 중에서도 소규모의 자본밖에 없던 사람들은 외지로 행상을 다녔고, 자본과 조직을 갖췄던 상인들은 차인제도와 시변제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몇몇 야담과 구비문학 작품들에는 철저한 경제관념을 지닌 개성상인의 실리주의적 모습이 그려져 있다. 『청구야담』에 수록된 <생금을 얻어 부자가 다시 한집에 살다[獲生金父子同室]>³⁹⁾라는 야담에서는 부자관계에서도 철저히 경제관념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송경 조동지는 수만 금 되는 재산이 있고, 차인을 전국에 두어 재물을 거래하는 상인이다.
- 2) 자식이 없던 조동지가 10세 된 걸인 소년의 관상을 보고 양자로 삼다.
- 3) 아들이 16세가 되어 결혼하고, 부친에게 5천 냥을 얻어 평양으로 장사하러 가다.
- 4) 아들이 기녀에게 흘려 돈을 탕진하자, 조동지가 아들과 가솔들을 쫓아내다.
- 5) 아들이 기녀의 집에 머물다가 기녀의 방문 섬돌이 생금(生金)이라는 것을 발견하다.

38) 임봉식, 『개성지』 권6, 개성지편찬소, 1934, 107, 110면; 경인문화사 영인, 『개성지』, 1989, 364, 367면.

39) 『청구야담』 권18; 최용 주해, 『주해 청구야담』 3, 국학자료원, 1996, 285~290면.

- 6) 아들이 기녀의 집을 나오면서 섬돌을 얻어 나온다.
- 7) 아들이 금가루를 조동지의 댁으로 보내니 조동지가 아들을 찾아가다.
- 8) 조동지가 아들이 횡재로 생금을 얻은 것을 보고 칭찬하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다.

<생금을 얻어 부자가 다시 한집에 살다> 작품은 개성의 부상(富商) 조동지가 양자로 들인 아들이 기생에게 홀려 돈을 잃어버리자 절연(絶緣)하고 그 식솔을 쫓아버렸는데, 아들이 횡재로 생금을 얻어 부자가 되자 그 가족을 다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는 개성상인의 상업활동 양상 및 이재에 관한 가치관을 알 수 있다. 1)에는 조동지가 수만 금 자본을 가진 부상으로서, 차인을 고용하여 전국적 규모로 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술되었다. 2)~4)에는 조동지가 만석꾼의 관상을 보고 얻은 양자가 성장하자 자본을 주어 일을 맡겨보고, 재산을 탕진하자 과양하고 쫓아내는 냉정한 모습이 기술되었다. 5)~8)에는 아들이 우연히 생금 덩어리를 얻어 부자가 되자 조동지가 기뻐하며 다시 맞이하는 모습이 기술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돈을 주고 일을 맡겨보지만, 일을 실패하면 부자관계라도 끊어버리는 개성상인의 실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5)·6)의 쫓겨난 아들이 생금을 횡재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당대 사람들의 횡재 욕구를 반영한 화소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동야회집(東野彙輯)』 권7에 <수일석부자서륜(輸一石父子敍倫)>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줄거리는 비슷하다. 『이조한문단편집』 상권에는 같은 내용의 작품이 <개성상인>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⁴⁰⁾

한편, 근대 개성출신의 실업가인 공성학(孔聖學: 1879~1957년)은 1929년 5월, 설화 채록자 임석재에게 자신이 듣고 보고 겪은 개성상인의 삶에

40)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상권, 일조각, 1973, 87~91면.

대해 구술하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개성 사람들이 조선에 반감을 품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이재(理財)의 길을 택했다는 것과 함께, 개성상인들이 후계자를 키우는 모습, 개성상인들끼리 엄격히 신용을 지키는 모습, 상인의 아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성상인이 상인을 기르는 방법은 독특하다. 거상에게 희망자가 오면 한 3, 4년 동안 숙식만 제공하고 무보수로 방 쓸기, 마당 쓸기, 담뱃불 심부름 등 각종의 잔심부름만 시키고 상품 교육이나 상술 같은 것은 전연 가르치지 않다가 수년 부려 보는 동안에 상인으로서 대성할 재질이 있다고 보면 돈 약간을 빌려 주며, 황해도 금천(金川)의 시별리 장에 가서 장사를 시킨다. 금천의 시별리는 수안(遂安), 곡산(谷山) 등지에서 나오는 곡물의 집산지이고 그 고장의 사람들은 순박해서 이해관계를 심하게 따지지 않는 고장이다. 그래서 개성상인의 풋내기는 상품 선별과 상술을 익히는 데에는 아주 적절한 고장이다. 이렇게 해서 상인다운 재질을 발휘하면 큰돈을 내주어 큰 장사를 하게 한다.

② 개성상인들끼리는 신용 위주로 돈거래를 한다. 그래서 개성상인 사이에는 채용증서니 어음의 교환이 없다. 돈을 갚는 날자, 이자를 내는 액수와 날자를 정하면 어김없이 그대로 실행한다. 만일에 약속날자를 하루라도 어기면 그는 그후에 돈 거래가 막힐 뿐 아니라 개성상인 사회에서 매장되고 만다.

③ 개성상인의 이재육은 남자뿐 아니라 그의 처들도 강하다. 남편이 장사 차로 외지에 나가서 남편 시중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돈 모으는 데 애를 쓴다.⁴¹⁾

공성학은 일제강점기에 민족자본으로 향토를 개발하여 일본인들의 자

41) 공성학 구술, <개성상인>, 앞의 책, 43~44면.

본침략에 저항하자고 주장한 지사형 민족기업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개성삼업주식회사 사장, 개성인삼조합 조합장, 개성상회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임석재를 만나 자신이 보고 겪은 개성상인의 삶에 대해 구술하면서, ①에서는 개성상인들이 상인을 기르는 독특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상인들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3, 4년간 무보수로 각종 잔심부름을 시켜보고 장래성이 보이면 약간의 돈을 빌려주어 상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②에서는 개성상인들이 신용위주로 돈 거래를 하는데, 신용을 잃으면 아주 매장된다고 하는 엄격한 신용 거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에서는 개성상인과 그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개성상인의 아내들은 남편들 못지않게 이재육과 생활력이 강하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개성상인 남편들은 외지를 떠돌며 외롭고 고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남편이 으레 집에 없다면 그 아내도 여성으로서 어찌 외롭고 힘들지 않겠는가? 앞서 인용한 ‘젊은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장기간 부재에도 분명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남편이 외지에 있으니 아내들이 남편의 시중드는 번거로움이 없어 돈 모으는 데 힘썼을 것이라는 공성학의 말은 개성상인 아내들의 부지런한 성격과 생활력을 말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개성상인 부부가 항시적으로 겪는 힘겨운 노동과 외로운 생활을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양 표현한 말로도 이해된다.

4. 학문과 구제 사업에 힘쓴 개성상인의 후예와 개성부자

4.1. 학인이자 구제사업에 힘쓴 개성상인의 후예, 김시탁

개성상인 개인의 실명이 기록으로 남아 전해진 예는 굉장히 드물다. 시

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년)이 19세기 전반, 조선의 비주류 인물들의 삶을 조명한 문학서 『추재기이(秋齋紀異)』⁴²⁾나, 조선후기 문인 유재건(劉在建: 1793~1880년)이 시정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여 1862년 편찬한 『이향견문록(異鄉見聞錄)』⁴³⁾에서도 개성상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개성상인은 특이한 행적을 보인 사람들에 한해 묘갈명이나 문집, 읍지에서 이름이 가끔씩 발견된다. 그중 한 명이 김덕준의 아들 시탁이다.

김시탁(金時鐸: 1713~1751년)은 개성상인 김덕준의 아들이고, 가업을 잇지 않고 학자로 전업하여 학문에 힘쓰면서 사회사업가로서의 삶을 산 인물이다. 김시탁의 생애는 조선후기 학자 김원행(金元行: 1702~1772년)이 쓴 김시탁의 묘갈명(墓碣銘)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⁴⁴⁾ 개성상인들의 자제들은 대부분 사환(使喚)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업을 이었다. 그런데, 18세기 초 개성상인 김덕준의 아들 김시탁은 재화를 불러보라는 부

42) 이 책은 저자 조수삼이 70대 이후인 1830년대에서 1840년대 사이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수삼은 도둑, 강도, 조방꾼, 거지, 부랑아, 방랑시인, 차력사, 술장수, 임노동자, 떡장수, 비구니, 전기수, 시장에서 해금 켜는 노인, 탈춤꾼, 재담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남다른 인생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 당대 하층 사회의 일면을 부각시켰다. (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 한겨레출판, 2010, 5~19면.) 그런데, 이 비주류 사람들 중에는 개성상인은 물론이고, 상인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한 명 없다. 저자가 상인을 사회적 소수자로 여기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43) 유재건은 중인 계층으로, 규장각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저자가 시정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사대부들의 이야기는 한 편도 없고, 모두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중인, 상민, 천민, 노예를 비롯해, 여자스님, 신선, 도사, 점쟁이 등의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말과 행동, 시와 문장을 기록할 만 280명을 직접 뽑아 10권의 책으로 편찬하였다. 그런데 이향의 어질고 선한 사람 가운데 잊힌 사람들을 되살려 기록한 『이향견문록』에도 개성상인에 대한 기록은 한 편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개성상인들의 말과 행동, 시와 문장에서 가려 뽑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44) 김원행이 쓴 묘갈명 『김군시탁묘갈명 병서(金君時鐸墓碣銘 并序)』는 『미호집』 권 17에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강여진이 번역한 『미호집』 4(보고사, 2013, 371~376면.)의 문장을 인용한다.

친의 뜻에 맞서, “우리 집안 산업이 이미 풍족하니 어찌 독서하여 지키는 것만 하겠습니까?”라고 하며, 학문의 길을 선택한다. 개성상인의 자제들 가운데 이런 삶을 산 사람은 드물기에 김시탁의 선택은 돋보인다.

그는 도암(陶庵) 이재(李穡)에게 수학한 뒤, 송악산 부근에 서실을 짓고 일대의 사우(士友)들과 학문에 힘썼다. 그는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행실을 닦는 데 힘쓰다가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는 자목(子木)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그의 행실은 학문뿐 아니라, 부친이 물려준 재물을 주위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일에서도 주목된다. 일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들과 지극히 우애가 있어 재용(財用)에 일정한 주인이 없었다. 친척이나 고을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혹 입고 먹여가며 가르치고, 때를 넘기도록 관례(冠禮)를 치르지 못한 자가 있으면 또 그를 위해 건(巾)과 복(服)을 마련해 씌워주었고, 후생이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기뻐하며 장려하였고, 세속의 굴레에 유인되어 학업을 게을리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색을 하고 꾸짖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복종하며 기꺼이 종유하였다.⁴⁵⁾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시탁은 학문에 힘쓰면서도 집안의 재물을 친지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사용하였다. 배움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 것은 오늘날로 치면 장학사업이며, 가난해 성인식을 치를 비용도 없는 사람들에게 의복을 지원한 것은 구제사업에 해당되니, 김시탁은 실제 친척 및 마을공동체의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다. 김시탁이 상인의 자제로서 부친이 이룬 경제적 토대 위에서 좀 더 높은 세계에

45) 김원행 저, 강여진 역, 위의 책, 374면.

뜻을 두어 학문의 길을 걸으면서도, 친척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장학사업, 복지사업을 펼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면을 통해 독서인이자 사회사업가로서 김시탁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19세기 말, 김택영은 『송양기구전』의 ‘학행전(學行傳)’에서 김시탁의 생애를 학문과 효행에 중심을 두어 기록하였다.⁴⁶⁾ 1934년에 발간된 『개성지』에서도 ‘재행(才行)’ 편에서 김시탁의 학문과 효행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였다.⁴⁷⁾ 김시탁의 삶에 대해 후대 사람들이 구제사업보다 학문과 효행의 행적을 더 높인 것은 유가적 가치관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4.2. 급인전(急人錢)을 조성하여 구제사업에 힘쓴 개성부자 최순성

김시탁 외에 구제사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영·정조대의 개성부자 최순성(崔舜星: 1719~1789년)이라는 사람이 있다. 최순성은 상인이 아닌, 양반가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면에 굳이 최순성의 행실을 기술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김시탁에 이어 구제사업에 힘쓴 개성부자라는 점을 밝히고자 함이다. 최순성의 삶은 연암 박지원이 1789년 최순성을 위해 써준 <치암최옹묘갈명(癡庵崔翁墓碣銘)>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 묘갈명에는 최순성이 남에게 우환이나 상사(喪事)가 있으면 마음이 허탈하여 마치 허기진 사람이 아침을 먹듯이 남을 도왔던 행적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다.⁴⁸⁾ 뒤에 개성 출신의 지식인 김택영(金澤榮: 1850~

46) <김시탁허증(金時鐸許增)>, 『중편한대송양기구전(重編韓代松陽耆舊傳)』 권1, 5-6장;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김택영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8, 543~545면.

47) 임봉식, 『개성지』 권6, 개성지편찬소, 1934, 25면; 경인문화사 영인, 『개성지』, 1989, 282면.

1927년)은 『송양기구전(崧陽耆舊傳)』⁴⁹⁾에 개성 출신의 인물 91명의 행적을 기술하였는데, ‘임홀전(任恤傳)’에 최순성의 행적 및 교유관계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⁵⁰⁾ 최순성의 행적을 요약한다면, ‘개성 부자의 자제 최순성이 집안의 재물 수만금을 모아 급인전(急人錢)을 만들어 구제사업을 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최순성>에는 그의 구제사업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① 최순성의 자는 경협(景協)이며 본관은 양천(陽川)인데, 대대로 돈이 많아 그 고을에서 큰 부자로 알려졌다. 순성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른 후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 재산을 모으겠는가. 가난한 것이 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쓸 줄을 모르면서 모으기만 해 무엇하리.” 하며 전 재산을 파락하여 한 해 동안 제사 지내고 손님 대접할 것과 입고 먹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만금

48) <치암최옹묘갈명(癡庵崔翁墓碣銘)>, 『연암집』 권2;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상편, 돌베개, 2007, 345~351면.

49) 『송양기구전』은 개성 출신 지식인 김택영이 쓴 개성 출신의 인물전으로, 1896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1903년에 개정판이 간행되었고, 1920년에 증보 산삭하여 『중편한대송양기구전(重編韓代崧陽耆舊傳)』으로 재차 간행되었다. 김택영은 정인지의 『고려사』를 한양 중심의 편파적 역사서로 규정하고, 『고려사』에 의해 묘술(描述)된 개성은 한양에 의한, 한양을 위한, 한양의 역사로 보았다. 그리하여 개성의 역사와 인물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쓴 것이다. 책에는 학행전(學行傳) 24명, 문사전(文詞傳) 18명, 충의전(忠義傳) 11명, 은일전(隱逸傳) 1명, 순량전(循良傳) 3명, 효우전(孝友傳) 16명, 정렬전(貞烈傳) 8명, 임홀전(任恤傳) 1명, 기절전(奇節傳) 2명, 무용전(武勇傳) 5명, 기술전(技術傳) 2명 등 모두 11가지로 분류하여 91명의 행적을 수록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50) <최순성(崔舜星)>, 『중편한대송양기구전(重編韓代崧陽耆舊傳)』 권2, 9~11면;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김택영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8, 586~588면. 또한 같은 내용이 <최순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소호당집(韶濩堂集)』 권9, 9~11면; 『김택영전집』 2, 176~1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최순성전>의 원문 및 번역문은 차용주 역, 『양원유집·해학유서·명미당집·소호당집·심재집』(한국고전문화학집 9), 고대민족문화연구원, 1993, 354~357면에 수록되어 있다.

을 별도로 모아 급인전(急人錢)이라 이름하고, 친척·친우 및 다른 고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할 것 없이 없는 사람에게 초상이 나면 부의도 하며, 말에서부터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빌려 주며 흉년이 들면 곡식을 주어 구했다.⁵¹⁾

② 그의 아들 성균진사(成均進士)인 진관(鎭觀) 또한 급인전을 저축해 흉년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살펴 밥을 해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돈이나 곡식을 주되 자신이 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⁵²⁾

위 인용문 ①에서는 최순성이 대대로 돈이 많은 부자라고만 하고,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최순성은 대지주일 수도 있지만, 전문 경영인인 차인(差人)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용자(使用人: 소유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순성은 부모가 세상을 뜬 후, 자신이 쓸 약간의 비용을 제외한 수만금으로 ‘급인전(急人錢)’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친척 및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까지 구제사업을 하였다. 급인전은 오늘날로 치면 자선사업기금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②에서 순성의 아들 진관은 성균진사를 할 만큼 학문에 전념하면서도, 아버지를 이어 ‘급인전’ 기금을 만들어 구제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성은 제주에 사는 친구 고경항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묘 앞에 비를 세우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르며 돌보았다. 또한 곡성에 사는 부친의 친구 임두라는 사람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는 매달 먹을 양식을 보내주었다. 순성은 일생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생사존망이 걸린 일을 해주고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풍류가 있어 술과 명승지 여행을 즐겼으며,

51) 차용주 역, 위의 책, 354면.

52) 같은 책, 356면.

친구를 좋아해 서울의 명사인 이충익(李忠翊), 민노행(閔魯行)의 무리들도 모두 그의 집에 출입했다고 한다. 이충익은 양명학자로 유명했으며, 민노행은 학문이 높아 추사 김정희와도 교유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최순성은 교양과 식견이 범상치 않았으며, 이충익이나 민노행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친구이자 패턴 역할도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최순성은 정조13년(1789)에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김택영은 최순성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개성이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검소하고 인색한 것이 옛날부터 풍속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순성과 같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최순성은 바로 모아 베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곧 달인(達人)으로서 겸손하고 가득차면 기울어지는 이치에 따라 귀신이 주는 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밝았기 때문일 것이다.⁵³⁾

김택영은 개성이 땅이 좁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아 검소하고 인색한 것이 풍습인데, 최순성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베풀기를 좋아하고 세상 이치를 알아 겸손하기까지 한 구제사업의 달인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연암 박지원도 최순성이 평생 구제사업에 헌신했음을 말하며, “집 재산이 거만(鉅萬)이었지만, 죽는 날에 미쳐서는 한 냥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⁵⁴⁾ 필자는 전술한 김시탁과 더불어, 풍류남아이자 사회사업가인 개성 부자 최순성의 삶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3) 같은 책, 357면.

54)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 앞의 책, 349면.

4.3. 가난한 지식인 허생(許生)의 패턴, 백 부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실린 <허생(許生)>은 연암의 완전한 창작물이 아닌, 널리 전해 오던 ‘허생 이야기’를 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이인설화가 『청구야담』, 『계서야담』, 『기문총화』, 『동야회집』, 『차산필담』 등 조선 후기 대표 야담집에 10여 편 보이며⁵⁵⁾, 뒤늦게 발굴된 연세대 소장본 『선유동기(仙遊洞記)』 역시 허생 이야기의 후반부인 북벌론이 변주된 이야기이다.⁵⁶⁾

여러 ‘허생 이야기’ 중에 허생에게 돈을 대주는 부자가 개성상인으로 그려진 이야기가 있다. 『청구야담』의 150화 작품인 <만금을 써서 기생 운양의 오금화로를 얻다[雲娘妓家銷盡萬金得烏金爐]>에는 이른바, 개성상인 ‘백 부자’가 지식인 ‘허생’의 패턴으로 그려졌다. 이 인물은 지인지감형 인물로, 인재를 알아보고 후원하는 개성상인 형상으로 그려졌다. 『청야담수(靑野談藪)』 150화에도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작품이 실려 있다. <허생별전>⁵⁷⁾, <식보기허생취동로(識寶氣許生取銅爐)>⁵⁸⁾를 비롯해 몇 편의 유사한 내용의 작품이 있다.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55)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박지원의 <허생전>은 그의 완전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조선 후기에 널리 유전되고 있던 허생 이야기를 나름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여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허생전> 정작에 관한 논의는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8; 임형택,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창작과 비평』 제13권 3호, 창비, 1978; 장진숙, 『야담 서사변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참조).

56)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자료 <선유동기>를 통해서』,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57)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상권, 94~99면.

58) 『동야회집』 88편.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설화집요』 1권, 572~573면에 개요가 수록되어 있다.

59)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설화집요』 2권, 658~659면에 개요가 수록되어 있다.

- 1) 허생은 방외인으로 가난한 집안을 돌보지 않고 책만 읽었으니, 그 아내가 바느질로 가게를 이어나갔다.
- 2) 하루는 허생이 그 아내가 머리를 잘라 끼니 장만하는 걸 보고, 일년을 기한으로 하고 집을 나갔다.
- 3) 허생이 송도 갑부 백모(白某)를 찾아가 천 금을 빌자 하니, 백군(白君)이 그 인물됨이 비범한 것을 알고 선뜻 빌려주었다.
- 4) 허생이 기성(箕城; 평양) 명기 초운의 집에 가서 매일같이 즐겨서 돈을 다 썼으며, 다시 백군에게 돈을 빌려다가 똑같이 다 탕진하였다.
- 5) 허생이 돈이 다 떨어지자 초운에게 정표로 좌상의 오동로(烏銅爐)를 달라고 하여 얻어냈다.
- 6) 허생이 오동로를 박살내서 회령개시로 가져가니 한 서역 상인이 와서 그것을 십만 금을 주고 사갔다. 그것은 진시황의 보물로, 오동이 아니라 오금(烏金)이었던 것이다.
- 7) 허생이 송도로 돌아와 백군에게 십만 금을 건네주고 떠나니, 백군이 뒤를 밟아 그 집을 알아낸 후 매달 돈과 곡식을 보내주었다.
- 8) 이때 상공 이완이 인재를 찾던 중 소문을 듣고 허생을 찾아왔다.
- 9) 허생이 나라를 세울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는데, 이공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꾸짖어 내쫓았다.
- 10) 이공이 다음날 다시 그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허생전>과 유사하나, 허생을 후원한 사람이 서울 변부자가 아니라, 송도 거상 백 부자인 것이 특이점이다. 백 부자는 돈을 빌려주되, 그 인물이 범상치 않으면 아무런 담보 없이도 그 자리에서 천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지인지감형(知人知鑑型) 인물이다. 허생의 비상한 인물됨은 기생집에 있는 오동로(검은 구리 화로)가 진시황의 내탕고에 있던 천하의 보물(오금)이었던 것을 알아본 탁월한 식견이나, 오동로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 정성을 다한 뒤 얻어내는 행위 등에서 드러

난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오금을 회령개시(會寧開市)에 가서 서역 상인에게 십만 냥을 받고 판다는 이야기다. 17세기 이후 청나라 북방상인들과 조선 상인들의 밀무역 현장인 회령개시⁶⁰⁾의 이름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툭 튀어나온 것이나, 오동로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허생의 형상이 작품에 그려진 것은 당대인들의 돈에 대한 치열한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개성 백 부자는 능력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무명의 인물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후원한 거상으로 형상화되었다. ‘개성 백 부자’는 가난한 지식인들의 소망이 투영된, 어쩌면 현실의 최성성 같은 인물을 모델로 한 형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고전문학 텍스트에 그려진 상업도시 개성의 풍경을 배경으로, ‘개성상인’의 형상 및 내면세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학작품은 대상 인물의 외모와 행동뿐 아니라 내면 성격을 그려내는 특성 상, 개성상인의 다양하고도 독특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고려시대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작품을 통해 개성상인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내면 세계를 발견하여, 사회경제적 인물로서의 개성상인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인들의 시문을 통해 개성의 풍경과 개성상인의 이미지에 대해

60) 회령개시는 1628년(인조 6) 정묘호란 이후부터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양국 관헌의 감시 하에 공무역의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영고탑(寧古塔)·오라(烏喇) 및 봉천·북경상인까지 몰려들었고, 조선에서는 함경도 일대의 상인뿐만 아니라 개성·서울 등지의 상인들도 참여해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회령개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찰하였다. 고려조 이규보는 국제무역도시 개경과 벽란도의 활발한 풍경을 그린 한시를 남겼다. 개성의 풍속과 개성상인의 집단적 모습을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작품은 이덕형의 <송도기이>다. 17세기 전반 개성유수의 직임을 맡았던 이덕형은 <송도기이>에 고려조의 순후한 운치가 남아 있는 개성과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상인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정두경은 <송도상인노래[松都賈客詞]>에서 외지로 행상을 떠난 개성상인의 고단한 생활과 고향 그리는 마음을 묘사하였다. 조선 후기 문신 김재찬은 송도를 유람한 뒤 지은 <송경십영(松京十詠)>에서 대규모 상업도시로 성장한 개성의 모습 및 부정적인 풍속을 표현하였다.

둘째, 서사문학에 묘사된 개성상인의 형상과 내면세계를 고찰하였다. 매월당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의 한 작품 <취유부벽정기>에는 개성의 부자상인 홍생의 풍류와 고려에 대한 추념의 정이 표현되었으며, 『매옹한록』의 <병자호란 때 잡혀간 송도상인의 아내[丙子胡亂松都商賈之妻]>에는 각각 병자호란 때 심양에 잡혀간 아내를 찾으러간 개성상인의 애뜻한 부부애가, 『청구야담』의 <해서 원이 시신을 감추어 은혜를 갚다[匿屍身海俸償恩]>에는 남편이 장사를 하러 외지에 나가 바람을 피운 개성상인의 아내와 그를 용서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34년 간행한 『개성지』에는 외지로 행상을 떠났다가 피살당한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절절한 마음이 그려졌다. 또한 『청구야담』의 <생금을 얻어 부자가 다시 한집에 살다[獲生金父子同宮]>, 1929년 개성상인 공성학이 구술한 <개성상인>에는 철저한 경제관념을 지닌 개성상인의 실리주의적 모습이 그려져 있다.

셋째, 실존인물을 중심으로 학문과 구제사업에 힘쓴 개성상인과 개성부자의 형상을 고찰하였다. 김시탁과 최순성의 묘갈명(墓碣銘)을 통해서도 학문과 구제 사업에 힘쓴 개성상인의 자제와 개성부자의 삶을 볼 수 있었다. 실존인물인 김시탁(金時鐸)은 개성상인의 자제로서, 부친이 이룬 경제

적 토대 위에서 좀 더 높은 세계에 뜻을 두어 학문의 길을 걸으면서도, 친척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장학사업, 복지사업을 펼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았다. 영정조 시기의 개성 부자 최순성(崔舜星)은 집안의 재물 수만금을 모아 급인전(急人錢)이라는 자선사업기금을 마련하여 구제사업을 하였다. 『청구야담』 등에 수록된 <만금을 써서 기생 운양의 오금화로를 얻다[雲娘妓家銷盡萬金得烏金爐]>에는 개성상인 백 부자가 가난한 지식인 허생의 패트론 역할을 하는 지인지감형 인물로 그려졌다.

이 연구는 ‘개성’이라는 특정 지역에, ‘상인’이라는 특정 직업군의 인물이 고전문학사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가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이 연구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의 문학유산을 통해 ‘개성상인’에 대한 인식과 표상이 형성·유포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 하였다. 개성상인을 문학적 형상화한 작품은 소설 한 편, 한시 몇 편, 야담 십여 편, 산문 서너 편, 읍지 한 편 등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주변부 인물인 개성상인이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형성·유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개성의 풍속과 개성상인의 집단적 모습을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이덕형의 <송도기이>, 개성상인의 부부애와 애환을 보여주는 야담 작품들, 학문과 구제사업에 힘쓴 김시탁과 최순성의 삶을 보여준 묘갈명 등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둘째, 이 연구의 방법은 만상(灣商)이나 내상(萊商) 등 다른 상인 군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할 때, 또는 다른 지역사나 다른 직업군의 인물을 연구할 때 관련연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문학연구의 주제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개성상인의 다양한 면모를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재를 제공할 것이다. 야담 작품에서는 개성상인 부부의 애정과 절개, 크게 될 인물을 알아보고 인재에 아낌 없이 투자하는 배포 큰 패트론의 모습, 묘갈명이나 실기작품에서는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구제기금으로 사용하여 사회사업을 하는 개성상인, 지리지를 통해서만 개성상인의 주요 인물이 파악된다. 이러한 문학자산을 활용하여 웹툰, 광고, 소설, 드라마 등의 장르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개성상인의 캐릭터를 청소년 및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태종실록』.

『인조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변례집요(邊例集要)』(한국사료총서 제16집).

『동야휘집』.

『매옹한록』.

『청구야담』.

김시습 저, 이지하 역, 『금오신화』, 민음사, 2008.

김원행, 『김군시탁묘갈명 병서(金君時鐸墓碣銘 并序)』, 『미호집』 권17; 김원행 저, 강여진 역, 『미호집』 4, 보고서, 2013.

김재찬, <송경십영(松京十詠)>, 『해석유고(海石遺稿)』 卷之三, 詩.

김택영, 『소호당집(韶濩堂集)』, 『중편현대송양기구전(重編韓代崧陽耆舊傳)』;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김택영전집』, 아세아문화사, 1978.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상편, 돌베개, 2007.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실화집요』 1-2권, 집문당, 1992.

-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제16권 古律詩.
 이덕형, <송도기이(松都奇異)>, 『대동야승』 제71권; 『대동야승』 17권, 민족문화추진회, 1971.
 이우성·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상중하, 일조각, 1973.
 임봉식, 『개성지』, 개성지편찬소, 1934; 경인문화사 영인, 『개성지』, 1989.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경기도편’(임석재전집 5), 평민사, 1989.
 정두경, <송도상인 노래[松都賈客詞]>, 『동명선생집(東溟先生集)』 卷之二, 七言絶句.
 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 한겨레출판, 2010.
 차용주 역, 『양원유집·해학유서·명미당집·소호당집·심재집』(한국고전문학전집 9), 고대민족문화연구원, 1993.
 최웅 주해, 『주해 청구야담』, 국학자료원,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 연구논저

-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 역사비평사, 2001, 209~220면.
 고혜선, 『고려 ‘쌍화’와 ‘삼사(samsa)’의 관련성 연구』, 『동양학』 55,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4, 119~140면.
 김남석, 『일제강점기 개성 지역 문화의 거점 “개성좌(開城座)” 연구-1912년 창립부터 1945년까지-』, 『영남학』 26,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4, 367~395면.
 김창원, 『근대 개성의 지리적 배치와 개성상인의 탄생』, 『국제어문』 64, 국제어문학회, 2015, 33~53면.
 양정필, 『1930년대 개성지역 신진 엘리트 연구 : 『고려시보』 동인의 사회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3, 한국역사연구회, 2007, 191~217면.
 오 성, 『개성상인들은 어떻게 일제에 저항하였나?』, 한철호 외 저, 『대한제국기 지방 사람들』, 어진이, 2006.
 이대형, 『<금오신화>의 서사방식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1~72면.
 임형택, 『한문단편 형성과정에서의 강담사』, 『창작과 비평』 제13권 3호, 창비, 1978.
 장진숙, 『야담 서사변개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정중현, 『일본제국기 개성의 지역성과 (탈)식민의 문화기획』, 『동방학지』 151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 279~329면.
 정출현,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8.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자료 <선유동기>를 통해서』,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채수 외 저, 전관수 역, 『조선사람들의 개성여행』, 지만지, 2008.

논문투고일 : 2018. 7. 22. 심사완료일 : 2018. 8. 13. 게재확정일 : 2018. 8. 16.

K C I

Abstract

The Study on the Gaesung Merchant Depicted
in Classical Literature

Kwon, Hyeok-ra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iterary form of 'Gaesung merchant' drawn in classical literary texts.

In Chapter 2, I examined the poetry and prose that the intellectuals had written about personality and personality merchants. Kim Si-tak (1713-1751) and Choi Soon-sung were descendants of the Gaesung merchants, and they were the ones who worked on scholarship and relief projects. As a merchant's son, Kim Si-tak was honored by the people, spreading scholarship and welfare projects for his relatives and communities while taking his academic path by putting his will in a higher world on the economic basis that his father had achieved. Choi Sun-seong was born in Yeongjo dynasty and died in the middle of the Jungjo dynasty. He collected tens of thousands of treasures from the family as a self-reliance of the Gaeseong rich, and provided a charity project called Geub-in-jeon.

In Chapter 3, I reviewed one of Maewoldang Kim Si-seub's *Geumo-sinhwa* "Chwi-yububyeogjeong-gi", ten books of historical stories, and some data of the early 20th century. The texts where the most common forms of Gaesung merchants are found in the historical stories such as *Chung-gu-yadam* and *Maeonghanpil*. In the story, the figure of the Gaesung merchant's married love, the realistic economic idea of the Gaesung merchant, and the merchant who supports poor intellectuals were drawn.

key words Gaesung Merchant, Cheong-gu-yadam, Kim Si-tag, Choi Sun-seong, *Sungyang-gigu jeon*

* Yongin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